

전통마을을 통한 한국버나쿨러 경관의 특성

서주환* · 이시영**

*경희대학교 디자인 연구원 · **경희대학교 조경학 박사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Vernacular Landscape through the Traditional Villages

Suh, Joo-Hwan* · Lee, Shi-Young**

*Design Research Institute of Kyunghee university

**Ph.D in Landscape Architecture,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Vernacular embodies a culture and economy that are unique to one particular region at a given period, expressed in the lifestyles of the ordinary people of the region. This study aims at interpreting Korean Vernacular Landscape by applying the analytical tool thus developed to the lifestyles of ordinary people found in their permanent dwellings (e.g., villages). By so doing, this study hopes to contribute to building a framework with which to understand the tradition of ordinary people by exploring the uniqueness and basic characteristics of Korean Vernacular Landscape.

This study relies primarily on field studies on, and publications relating to, the agrarian and residential landscapes. The Korean vernacular landscape has not only crude and simple generality, but also individuality derived from cultural circumstances and natural feature.

Korean Vernacular Landscape may be characterized as the practical Vernacular Landscape, consisting of the raw materials that were only available in a particular region, shaped by the terrain, and maintained by the customs that varied from a region to a region.

Key Words : Vernacular, Vernacular Landscape, Traditional Village, Agrarian Landscape, Traditional Landscape

I. 서론

한국의 역사에서, 민중들의 생활양식과 생활문화는 한국만의 고유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자신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민중계층의 미약한 힘과 그들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립되지 못한 채, 현대의 전통문화에 대한 고찰은 상류문화에 편중되어 있다(Rapoport, A., 1969: 2-3).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로 이어온 민중문화는 민중의 일상적인 생활습관과 자연스러운 욕구로 이루어진 '버나쿨러(Vernacular)'라는 또 하나의 민중양식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확립을 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버나쿨러'에 대한 연구들은 부분적으로는 의 되고 있다. B. Rudofsky(1964)가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s"에서 세계의 다양한 버나쿨러 건축에 대해 소개를 하고, 이 분야에 있어 연구의 시초를 마련한 이래로, John Pile은 '버나쿨러'를 디자인의 3가지 근원적인 요소(자연·버나쿨러·과학기술)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곧 '버나쿨러'가 디자인을 통한 그 지역 나름대로의 전통의 미와 모습을 고도로 발달된 현대 디자인의 영역에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독특한 문화를 재창조" 해낼 수 있는 디자인의 "원천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 Rapoport(1969)는 그의 저서 "House form and Culture"에서 고급 설계전통만을 지향하고 있는 현대의 전통 문화양식을 지양하면서, 잊혀져 가는 '버나쿨러'라는 토속 문화 방식을 주거형태에서 찾자 하였다.

한편, John Pile은 "'버나쿨러 디자인(Venacular Design)'"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형성되어진 일상생활의 수많은 적용들은 주제면에서 자연과 마찬가지로 너무 광범위하고, 전체를 다룰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이러한 버나쿨러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 해도 전체에 대하여 논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며,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Pile, J., 1985. 17).

현재 사용되는 '버나쿨러'라는 용어는 과거로부터 존재되어 있었거나, 과거의 생활 환경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인간 활동의 소극적 양상을 설명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이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고, 폭넓

게 이해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버나쿨러'에 대한 이해 및 현대적 적용에 있어 많은 사례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례들은 점점 없어져 회귀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다.

따라서 '버나쿨러'라는 용어는 전문가들에게서조차 잊혀져 가는 하나의 사전적 의미로 남겨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의미가 유사어들과 섞여 희석되어져 가고 있음으로 해서 차치 회귀동식물이 지구상에서 멸종되듯이 그 의미가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버나쿨러'는 전통의 귀중 문화계나 보물로서 간직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유·무형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들은 다시금 재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버나쿨러(Vernacular)'란 한 지역, 한 시대 또는 한 집단에서 가장 흔한 형태나, 재료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기능적 표현 또는 풍토, 토속, 지역적 양식의 의미하며(Webster Dictionary, 1986: 2544)²⁾, 버나쿨러 경관(Vernacular Landscape)은 지역의 전통, 일상재료, 또는 문화적 관습으로부터 형성된 형태 또는 경관으로서 시대별 민중들의 외부공간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준다(서주환·이시영, 1998: 80).

본 연구는 전통의 한 부분이면서 그 동안 외면되어 온, 그렇지만 민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민중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엿 볼 수 있는 한국의 버나쿨러 경관을 민중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한 방법으로 보고 시작하였으며, 민중생활상의 반영체로서 한국 버나쿨러" 경관의 양상을 민중들의 정주공간을 대상으로 살펴보아, 버나쿨러 경관의 특성과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민중문화를 이해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대상으로서의 버나쿨러 경관은 사례와 관련된 무형적인 공간의 모습들이 이미 도태되었거나 그 이미지가 희석되버린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지 답사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실체를 고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환경분야의 특성이므로 우리 민족의 유·무형적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널리 인정된 다섯 곳의 대표적 전통 민속마을을 통

표 1 마을 공간의 분류

	마을의 공간	
	공간개념에 따른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
개인 공간	주거공간	주택부분, 부속사, 개인경지면적
공동 공간	이동공간	농업용 수납공간
	생업공간	공동직업공간
	놀이공간	공동마당, 공로
	제의공간	휴식 및 놀이공간
	관계공간	신앙 및 의례공간
		생활부대공간 길의 공간

해 기본적인 버나클러 디자인의 실체를 조사하였다.

현재 전통마을들은 공식적으로 법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마을들과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1990년 이후 문화체육부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전통문화마을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 중 공식적으로 문화재 보호법과 전통건축물보존법에 의해 보존대상으로 되어있는 곳으로는 사적 낙안읍성(302호), 중요민속자료로서 하회마을(122호), 성음마을(188호), 양동마을(189호), 그리고 전통건축물보존지구로서 왕곡마을(1호), 외암리마을(2호)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전통문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1990- 1996년까지 난실마을, 창동마을, 군량마을 등 31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다(문화체육부, 1994: 28-30).

따라서, 법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곳 6개마을중 왕곡마을을 제외한 5개마을을 선정하였으며, 답사는 1999년 3월 27일부터 4월 18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행하였다.

또한 이론적 고찰로서 전통적 역사연구법과 같이 문헌 연구자료를 토대로 당시 경관의 양상을 보여주는 각종 풍속화 자료 등을 보충하여 지나가 버린 마을경관의 모습을 고찰하면서 문헌의 재해석을 통해 비교 서술하였다.

III. 버나클러 경관 유형

버나클러 경관은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며 고유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마을어귀의 큰 정자목과 장승, 마을 앞의 넓은 들판과 허수아비, 뒷동산, 돌담 그리고 초가지붕 등 다양한 마을 경관의 형태

를 보여주고 있다.(임봉구, 1986: 15) 또한, 마을의 아름다움은 반인공적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인간의 활동과 자연생태계가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민속마을에서 버나클러 경관을 살펴보는 것은 민속마을들이 형태의 보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형적인 당시 분위기와 자연경관을 포함한 시대경관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 점이 야기되는 바, 먼저 기존연구를 통해 공간유형을 분류하고 구체화된 공간유형속에서 당시의 버나클러 경관을 이해하고자 한다.

마을의 영역을 기능에 따라 나누어보면 주거공간과 이동공간, 생업공간, 놀이공간, 제의공간, 관계공간 등으로 분별되며, 이는 공간개념에 의해 첫째, 집터를 이루는 주거공간, 둘째, 동계와 기우체·묘사 등을 올리는 제의공간, 셋째, 경작과 채취 등 생계활동을 하는 생업공간, 넷째, 휴식과 놀이를 위한 놀이공간, 다섯째, 마을 안팎 또는 집과 집을 이어주는 이동공간 등이 필요하다(최인학, 1998: 33-65).

또한, 마을의 공간은 마을 전체로 보아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으로 나누어지며 용도별로는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활공간은 주거공간으로 일상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내일의 작업을 위해 휴식하는 주거부분이며, 생산공간은 농업용 수납공간, 공동직업공간, 저장공간을 포함한다(이재우, 1982: 44-45).

개인공간이라 함은 주택부분 및 그에 부속되는 부속사와 개인경지 면적이 포함된다. 공동공간은 공동마당과 공로를 포함하여 마을사람 전체가 사용하는 곳으로 이러한 공동공간은 첫째로, 휴식공간 및 놀이공간으로서 마을내의 공터 및 정자목공간 등을 이용, 대화의 장소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며(박성준, 1986: 30), 둘째로, 신앙 및 의례공간으로서 마을에는 무속 신앙적인 상징물로 성황당, 당산목, 장승과 유교적 제사공간인 사당, 서원, 향교 등의 공간 구성을 가지며(조성기, 1979: 49), 셋째로, 생활부대공간은 우물, 빨래터, 목욕터 등으로서 사회적 공간을 형성하기도 한다(Rapport, A., 1969: 73). 마지막으로 길의 공간으로서 지형에 농촌마을의 길은 지형에 대응하여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다.

이중 버나클러가 '필요'에 의해 생성된다는 특성상 기능에 의한 분류와 부합되며, 이를 바탕으로 전통마을

의 버나쿨러 이미지를 정리해 본다면(그림 1 참조),

- 1) 배치면에서 풍수적 의미로 집과 뒷동산의 경관,
- 2) 입구경관으로서 마을 어귀의 큰 정자목과 장승 등을 엿볼 수 있으며,
- 3) 마을의 지역성과 풍토성을 잘 반영하며 우리의 정취를 엿볼 수 있는 길과 이를 한정하고 있는 담의 모양,
- 4) 사회적 공간으로서 우물가 또는 마을 앞의 개울, 마을의 중심의 정자목 등
- 5) 생활공간으로서 집 주변 텃밭과 마당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전통마을에서의 버나쿨러 경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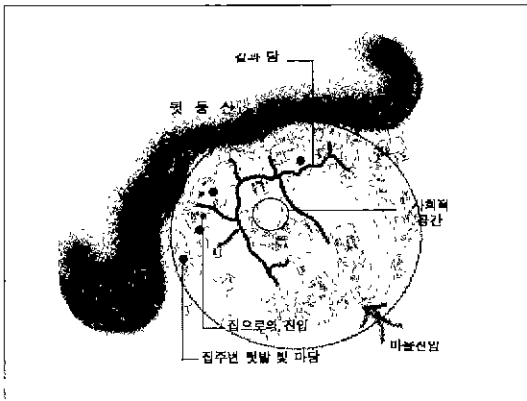


그림 1. 양동마을 내의 버나쿨러 이미지

IV. 전통마을 버나쿨러 경관의 특성

1. 버나쿨러 경관의 특성

전통마을의 버나쿨러 경관은 지역의 자연적 특성의 반영이다. 각 마을단위의 공간마다 그 나름의 고유한 정관적 특성을 가지고 여타 마을과 뚜렷한 내면적 차이점과 그로 인한 경관의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만의 재료, 풍토적 여건, 그리고 마을풍습과 사회 관념은 독특한 경관을 유지시키며, 그들의 생활과 사회상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버나쿨러 경관을 형성시키고 있다. 또 한편으로 각 지역별 특색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2. 공간 유형별 버나쿨러 경관

1) 집과 뒷동산의 경관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경관의 미는 바로 자연 속에 가장 조화롭게 안착되어 있는 배치형국으로서, 이는 대표적 버나쿨러 경관이며, 지리적 특성을 조화롭게 풀어 지모사상의 영향아래 마을을 자연 경관 속에 배치해 놓은 것이다(최인학, 1998: 64).

풍수설에 입각한 가장 기본적인 마을의 모습은 소위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과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지형으로서 한국 대부분의 농촌마을들은 산을 뒤에 등지고 남향으로 앉아서 앞에 경작지와 하천을 마주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는 일년의 반 이상이 추운 계절인 우리의 지역적 특성에서 겨울바람으로부터 보호 받으려는 생태학적 의미와 함께 일종의 위요된 환경을 선호하는 환경심리학적 경향과 둘러싸는 지형들에 정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범신론적 샤머니즘(shamanism)의 사고와도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

고화(古畵) 중에 마을이나 서민들의 생활모습을 담은 그림들 가운데, 간간히 우리 마을의 풍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림들을 볼 수 있다. 이 그림들은 한결같이 수려한 경관과 마을



그림 2. 추경산수도
자료: 김창수, 19세기 후반, 국립박물관 소장

앞과 뒤쪽으로 산과 들이 위치하며 마을을 감싸고 있다. 우리 국토의 70%가 산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을의 입지의 관련하여 산을 주변에 두르고 위치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될 수 있으나, 풍수적으로 또 생태적 관점으로도 자연과 호흡을 이루며 마을의 입지가 놓여졌으며, 어머니의 태반처럼 이롭게 산을 등지고 놓여졌다면 그것은 우리 고유의 버나쿨러 경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마을 진입부 경관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부는 단순히 입구의 의미를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읍성이나 도성과 같이 방어의 기능을 갖거나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주술적으로 마을의 방비와 재액을 물리치는 기능과 경계를 나타내는 상징성을 띠며 그것이 곧, 한국

마을의 버나쿨러 진입경관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을의 진입부에서 보여주는 토착신앙의 표현으로 장승이나 돌무덤, 석장승, 남근석, 성황당, 오리숫대 등은 각각 그 지역적인 재료와 생활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하여금 그 마을의 이미지를 상징화시켜 준다.



그림 3. 마을의 진입부숫대
자료: 송봉화(1998)

3) 집으로의 진입경관

집으로의 들어가는 진입공간에도 지역특색이 나타난다. 생활속의 들고 나옴을 편히 하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진입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공간 배치는 나뭇가지 모양의 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김홍식, 1984: 185) 대부분의 집은 길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돌아서 만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 직접적 시선을 차단해서 독립성 있는 내부공간을 갖고자 함이고 공간의 리듬감을 부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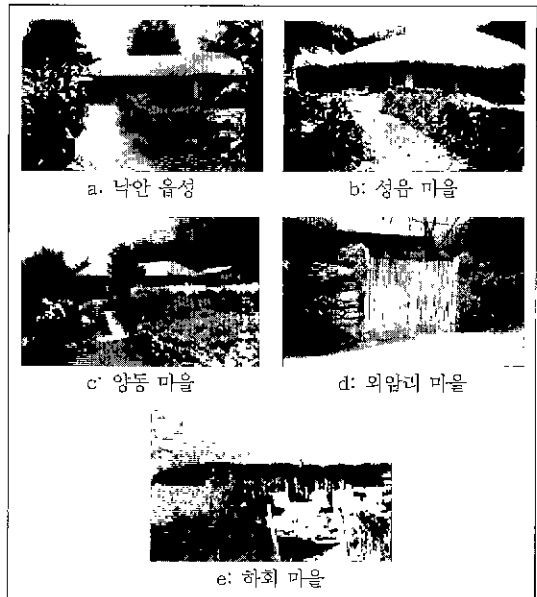


그림 4. 집으로의 진입경관

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출입구에는 집에 따라 한두 단의 계단을 두어 외부와의 위계를 만들고 공간을 구분하여 집안으로의 상승효과를 두고 있다. 그러나 높은 층계나 단은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 계획기법이다.

내륙에서는 고살이라는 몇 집의 공동 진입공간을 두고 있고, 제주에서는 올래라는 개인 진입공간을 두고 있다. 제주에서는 특히 대문이 발달하지 않고 통나무를 이용한 정랑이 발달되어 있어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올래와 같은 진입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4) 길과 담의 경관

집과 집을 이어주는 것이 길이라면, 집과 집을 경계 짓는 것이 담장이다. 길의 흐름은 담의 흐름에 의존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이 인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 담이 인상적인 까닭도 있다. 담의 유연한 흐름만 만 아니라 누런 흙으로 이루어진 황토 빛깔도 토속적인 인상을 풍긴다. 전통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담은 돌담, 흙담인데 한 마을에서는 하나의 유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회마을에서는 풍수상의 이유와 자연환경 또한 하안에 위치하므로 토담이 많다. 거기에 더하여 토담을 보호하기 위해 엮어 놓은 기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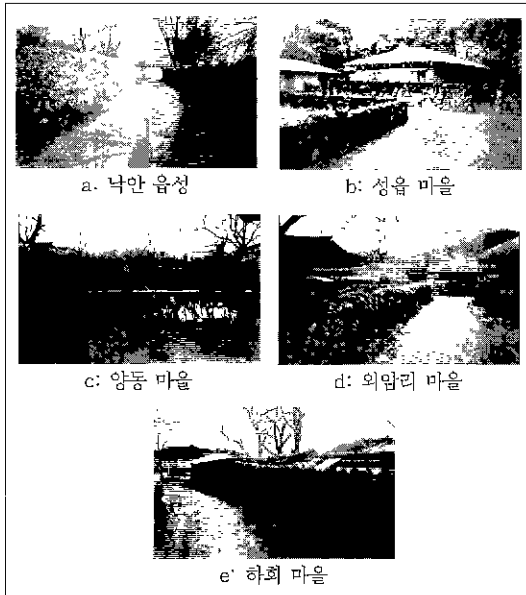


그림 5. 길과 담의 경관

짚으로 덮어놓아 토속마을 더해준다. 토담이 양옆으로 서있으면서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구불거리는 길의 형상을 인식시켜주며, 길의 끝 부분으로 시각을 이끌어 주고 흥미를 당겨준다. 홍만선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도 장소의 프라이버시와 공간의 분절을 위해 직선으로 된 길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굴리고 틀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원, 1999: 65).

돌담은 토담이 주는 버나클러 경관과는 또 다른 이미지를 준다. 외암리 마을에는 막들을 주어 모아 줄이나 속 흙채움 없이 쌓아올려진 돌각담이 있다. 담의 두께가 매우 두껍게 조성되어 있어 골목길을 걷다보면 성벽사이를 걷는 기분이 들 정도이다. 대대로 마을 주민들이 대지를 조성하고 농경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온 마을에 깔려있는 자갈을 제거하여 도로변과 대지 경계선에 돌담을 쌓았으며 이 때문에 마을 전체가 돌담 속에 묻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5) 집 주변 텃밭과 마당 경관

기단 아래, 집 옆 작은 공간, 담 아래 기다란 곳이면 어김없이 있는 것이 작은 화단이다. 예전 우리 나라 정원의 특징으로 꾸밈의 장이 아니라 집 옆의 작은 공간에 텃밭을 일구어 실용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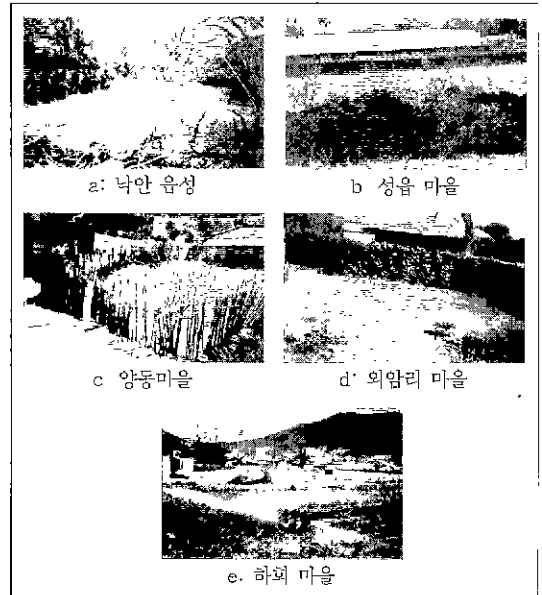


그림 6. 집 주변 텃밭과 마당 경관

제주도에서는 집 주위를 두르고 있는 텃밭을 '우영'이라 한다. 우영은 집 양측면 또는 안뒤의 뒤 등 대지의 외곽지대에 위치한다 또 집 주위에는 조리하는데 부식물로 쓰기 위한 채소를 심어두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을 '텃밭'이라 한다. 텃밭은 집안에서 일궈지는 경우가 드물다. 집안에는 대개 조그만 화단이나 다용도로 쓰이는 조그만 '터설'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터설은 읍성 고을에서 볼 수 있는데, 가령 텃밭이 집 주위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따로 담을 해서 경계를 만들고 있으며 집터는 조그맣게 조성하는 게 보통이다 이것은 조그만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아야 하는데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마당은 꾸밈이 없이 그저 험하디 험한 널찍한 터만으로 되어 있다. 집안의 행사나 작업의 공간으로, 아이들의 유희의 공간으로 그 쓰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풍속화에서 보면 이 모습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다. 정월 초순이면 옷놀이 판과 널뛰기를 하는 놀이마당으로, 가을 추수가 끝나면 마당은 정월의 놀이공간에서 작업공간으로 변모한다. 또한, 길쌈도 하며, 목화에서 실을 뽑을 때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마당에서 이루어진다. 초기지붕과 돌이 군데군데 박힌 담장, 흙 바닥에 멍석 한 장 깔아 곡식을 말리고,



그림 7. 견본착색추동전원협업승화
자료: 김두량, 년도(숙종 22)

잔치준비를 하고, 정원을 즐기는 것이다.

6) 마을의 사회적 공간

마을 내부에는 개인 공간인 각자의 주거와 마을 사람들 전체를 위한 공용공간이 있다. 공동의 공간은 누구의 소유랄 것 없는 다함께 모여서 즐기는 곳을 의미하는데, 유희를 위한 곳일 수도 있고, 생활을 위한 곳일 수도 있다. 작업공간이 되기도 하고, 마을의 공동행사장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마을 공간구조는 공공공간이 많은 점을 들 수 있는데 집안의 마당으로부터 시작하여 집과 집사이의 텃밭, 마을 내의 공동우물가, 방앗간, 빨래터, 정자목공간 등 다양한 모임공간이 조성



그림 9. 빨래터
자료: 이서지, 한국풍속화집, 서문당,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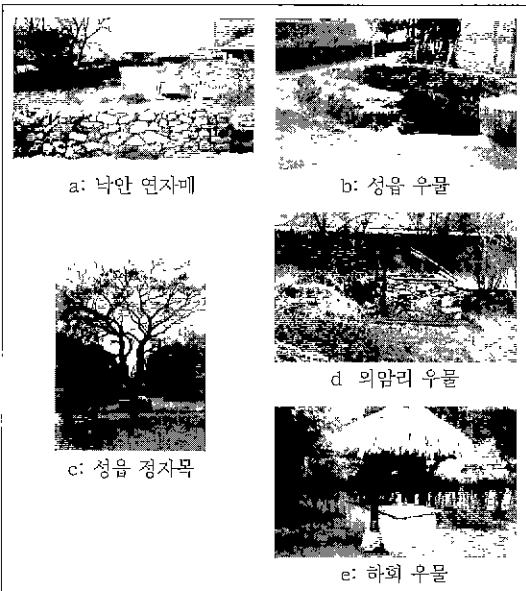


그림 8. 마을의 사회적 공간

되어 마을의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며, 우리만의 비나쿨러 경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문화현상은 집단적 행위가 필요한 농경사회의 한 단면으로 해석되며, 이서지⁴⁾ 풍속회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빠질 수 없는 공동 생활터가 빨래터이다. 예전에는 동네를 가로질러 흐르는 개울가에서 모여 빨래를 했었다.

정자목도 대표적인 마을내 사회적 공간중 하나이고 정자목 아래에서 다양한 행태가 일어난다. 마을 수직 요소로서 가장 랜드마크(landmark)적인 이미지와 함께 휴게와 모임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을의 각종 송사도 행해지며 그 마을의 경관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전통의 한 부분이면서 그 동안 외면되어

은. 민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민중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한국의 버나클러 경관을 민중문화에 대한 이해의 한 방법으로 보고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전통마을을 통한 한국 버나클러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산하의 평온한 기후와 자연을 숭배하고 믿는 범신론적 사고와 자연에 융화하는 마음으로 하여 삶의 터전을 가꾸고 만들어 왔다. 특히 그 당시는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꾸밈이 없는 사회였기에 소박한 미를 추구하였고, 이 모습은 생활의 전반에서 엿볼 수 있다. 집의 모습이 그렇고, 사는 모습이 그랬으며 따라서, 버나클러 경관에서도 이것이 투영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버나클러’는 꾸밈을 하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특성상 장식에 가려지지 않아 생활과 사고가 투영된 것을 뚜렷이 볼 수 있다.

둘째, 우리 서민들이 거주하는 정주공간의 버나클러 경관으로서 마을어귀는 장승이나 솟대, 석탑, 돌하루방 등 다양한 형태의 민속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암시와 외부와의 경계 및 주술적 기능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상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전통 마을에서 입구를 지나 가가호호 모여있는 초가집 사이로 접어들면 우리의 버나클러 경관을 한 번 더 마주치게 된다.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형성된 토담, 싸리울, 석담 등 적당히 좁고 구불구불하게 위오되어 있는 선형공간과 이를 구성하는 천연재료가 경관의 흥미감과 정취를 보행자들에게 전해 주며 오밀조밀 구성되어 있는 골목길과 결코 일직선으로 뻗어있지 않은 구성은 시각적, 행태적 흥미감을 유발한다.

넷째, 전통적 주거발생에 의한 마을은, 새로 생기는 주거를 따라 길이 생성되며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기 때문에 길의 구성에서 공간을 한정짓는 담들은 모양이나 재료도 획일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구해지는 재료를 따라 구성된다. 그러나 트담이나 생울타리 등이 영구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않아 여러 가지 모습이 다양하게 섞여 있으나 재료가 자연계여서 어색함이 없이 하나의 환경 생태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마을의 사회생활 모습은 다양한 공동공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정자목 아래, 공동우물가, 동네 앞 개천의 빨래터, 뒷동산의 공터 등 이러한 공간이 일반 대중들의 여가 공간으로 또는 마을의 공공공간

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전체적인 마을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기능적으로도 항상 중요한 마을 내의 공동생활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정자목과 마을 뒷동산 등은 한국의 버나클러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강한 시각적 인자이고 시대적 변화에도 큰 변화 없이 그 자리에. 키스톤(key-stone)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민속마을의 답사와 문헌자료를 통해 얻은 결과로서, 연구의 한계점으로 각 지역별 사례를 통한 종합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편적인 모습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앞서도 전제하였지만 버나클러의 특성상 지역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전지역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현재 각 지역별 실제사례를 통한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주1. 본 연구에서 민중이 의미하는 것은 특권 유한 계급과 대끼되는 한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계급의 사람들을 지칭할. 또 한편으로 버나클러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생산한다는 점에서 민중은 전문가에 대비되는 의미를 함유한다

주2 ‘버나클러 (Vernacular)’ 명사로는 한 지역, 한 시대 또는 한 집단에서 가장 흔한 형태나, 재료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기능적 표현 또는 양식, 풍토, 토속, 지역적 양식을 의미하며, 형용사로는 ‘버나클러 경관/조경’ 또는 ‘버나클러 디자인’과 같이 쓰인다

주3 전통과 비교를 통해 버나클러의 특성을 보면 전통이란 말은 문자 이외의 수단으로 무엇인가를 전수하는 행위자체나 전수되는 문화내용을 뜻하는데, 그 문화내용 중에서도 특히 하나의 문화를 특색 지우는 뚜렷한 요소, 또는 요소들이 긴 역사를 지니고 있을 때 그 요소들의 집합을 좁은 의미에서 ‘전통’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전통은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후세 사람들에게도 공감할 줄 수 있는 고유 가치를 지녀야 하고 시대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새롭게 살 수 있는 가치를 지녀야 한다 즉, 한 민족의 전통이라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깨어지는 문화적 맥락으로서 시간성·공간성·주체성의 세 요소의 종합에 의해 만들어지고 존재되어 진다.

	전통	버나클러
주체성	상당부분 독강 지배계층에 한정적	진문적 교육과 기술적 혜택을 받지 못한 일반서민
시간성	전승되며 반복, 발전하는 특성	당 시대의 현시적 특성을 지니며 지속성이 미약
공간성	나라 또는 지역의 대표성을 지님	일부분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

주4. 이서지 . 1934년 충남 청원 출생, 30여년을 공속 화가로 서 의길로 경전해 온 어 방면의 대표적인 작가, 민속학

자들마저도 당목할 정확한 고증이 가능할 정도의 묘사
력으로 당대에서 인정받음.

인용문헌

- 1 김 원(1999) 우리시대 건축이야기. 서울 열화당
- 2 김홍식(1984) 한국의 미. 서울 중앙일보사
- 3 문화체육부(1994) 전통문화마을 보존·전승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 문화체육부
- 4 문화체육부(1996) 시범문화마을현황, 문화체육부
- 5 박성준(1986) 한국건축의 공간구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 6 서주환, 이시영(1998) 버나쿨러 디자인을 통한 조경디자인
의 활용가능성, 한국정원학회지 26· 80.
- 7 이제우(1982) 韓國農村地域における農家住宅の空間構成に
關する基礎的研究, 早稻田대학 박사학위논문
- 8 임봉구(1986) 한국농촌마을 정자목공간의 유형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9 조성기(1979) 한국자연부락의 집락형태에 관한 연구, 건축
학회지 23(88)· 49
- 10 최인학(1998) 기층문화를 통해본 한국인 상상 체계, 서울
민속원
- 11 Pile, J.(1985) The Contemporary Design Thought, 현대
디자인사조, 박대순·이재국(역), 서울· 창미사
- 12 Rapoport, A.(1969)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J.
- 13 Webster's Thu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1986),
Merriam-Webster Inc.